



3면

에너지 전환 특자도 특례 발굴 공감대

# 전주매일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음 2월 5일) 제321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본격 착수

김관영 도지사 주재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도-시군-전북연 협업  
산업·안전·복지 등  
내년 신규 520여건 발굴

2년 연속 9조원 이상  
확보 목표로 선제대응

전북도가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520여건(2024년 국비요구액 7,500억원 상당)을 발굴하고 2년 연속 국가예산 9조원대 확보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23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국가예산 신규사업 3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전북도의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2월 현재)은 518건(국비요구액 7,500억원 규모)이며, 이밖에 발굴한 주요 신규사업들은 산업·경제,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사회간접자본(SOC), 환경·안전·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산업·경제 분야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홀로그래프 실증단지 구축 수소생태계 강화 H2 빌리지 조성, 전북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농생명 분야에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스마트팜 곤충 생산단지 조성, 국제 스마트팜 엑스포 개최 동물용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체류형 한옥



2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5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최종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관광숙박단지 조성, 새만금·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 새만금 그린인프라 조성, 새만금 디지털혁신지구 조성,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으며, 환경·안전·복지 분야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전북 산재 전문병원 건립, 전북 복지기동대 운영, 신규 풍수해생활권 정비 4개소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정부예산 편성순기 보다 한발 앞선 선제 대응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추진단과 전북연구원, 14개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해 왔다.

신규사업은 시작년도 예산확보액은 적지만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연속적 사업확장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내외적 경제위기로 민생여건이 악화되고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전방위적 재정혁신 추진, 신규사업 억제와 완공 위주의 계속사업 투자 등 국가예산 확보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전북도는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2년 연속 9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정치권 및 시군과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선 부처 지출현도액 배정 이전인 3월 말까지 발굴된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 논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100대 중점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해,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사전 설명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주요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점 확보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시·군 정치권과 탄탄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작년 우리 도는 정치환경과 정부 재정 기조 변화 등 험난한 여건 속에서도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개척했다"며, "올해는 부처 단계부터 확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고 구체적인 논리와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작년 우리 도는 정치환경과 정부 재정 기조 변화 등 험난한 여건 속에서도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개척했다"며, "올해는 부처 단계부터 확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고 구체적인 논리와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작년 우리 도는 정치환경과 정부 재정 기조 변화 등 험난한 여건 속에서도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개척했다"며, "올해는 부처 단계부터 확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고 구체적인 논리와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작년 우리 도는 정치환경과 정부 재정 기조 변화 등 험난한 여건 속에서도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개척했다"며, "올해는 부처 단계부터 확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고 구체적인 논리와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작년 우리 도는 정치환경과 정부 재정 기조 변화 등 험난한 여건 속에서도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개척했다"며, "올해는 부처 단계부터 확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고 구체적인 논리와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민선 6~7기 삼락농정 값진 성과 일궜다

삼락농정위 워크숍서 활동 상황 공유  
농업·농촌분야 예산 점유율 12.8%  
농가소득 증가율 53.7% 달성 등

민선 6~7기 농민과 함께한 삼락농정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8년간의 활동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 마련됐다.

전북도는 23일 삼락농정위원장, 도·시군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락농정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락농정위원회 제4기(2021~2022년)는 운영 기간에 코로나19로 각종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100여 차례 회의·포럼 등을 진행하면서 농어민 공익수당 어가·양봉농가 확대 지원, 우리밀 제도 개선 및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제1기~제4기 8년간에 걸친 삼락농정위원회 전체 활동 성과와 시사점을 공유하며 삼락농정정책 전반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시간도 가졌다.

삼락농정은 민선 6~7기 전북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됐다. 1~4기까지 총 44회 회의·포럼 등을 진행해 현장중심의 문제 해결형 정책의제 발굴, 지역농정 핵심의제화, 전북 자체 농정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활발한 논의와 소통으로 지역 협치농정의 성공적인 모델도 확립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전국 최초),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광역

최초),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 전북생생마을 조성,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4대 혁신클러스터 조성(식품, 종자 등), 한우 고능력 암소 육종 조성(전국 선도), 수산물 광역 브랜드 '해기림' 개발(전국 최초) 등이 모두 위원회에서 제안되고 정책화된 사업으로, 총 126개 사업, 728억원(국·도비 기준)의 사업예산을 투자했다.

그 결과 삼락농정 추진 전후인 2013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농업·농촌분야 예산 점유율 12.8%로 전국 1위, △농가소득 증가율 53.7%로 전국 1위, △1억원 이상 농축산물 판매 농가 증가율 58%로 전국 1위, △우수 로컬푸드 직매장 인건 점유율 38%로 전국 1위 등 값진 성과를 일궜다.

삼락농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바쁜 현업활동에도 그동안 삼락농정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삼락농정 정책의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함께해 뜻깊고, 비록 삼락농정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지만 농민과 함께한 삼락농정정책의 정신을 계승·발전한 새로운 농정거버넌스를 구성·출범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지속가능한 전북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전세 사기 예방... 도, '강통전세' 집중 단속

27일부터 3주동안 고가 아파트단지 등 대상  
시·군과 지도·단속, 시·군별 자체 점검 강화

고취하고, 중개 의뢰인이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를 하도록 책임과 역할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금·시세정보 등에 대한 성실

확인·설명 이행 여부, △강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묵인·가담하는 사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이다.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의

주요내용 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과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기

회가 많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세사기 등 위험요소를 정확히 안내해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도는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해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